



# 강원대학교병원 개원20주년

Since 2000.05.18

## 개원 20주년 맞는 강원대병원 이승준 병원장

### + INTERVIEW



Q 2019년 7월 '비전 2025'를 선포했다. 도민들에게 비전 2025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달라.

A 강원도 유일의 국립대 병원으로, 의료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한 의미 있는 행사다. '강원 의료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병원' 이 말은 우리병원에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가진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4대 실행과제를 선정해 과제별로 세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4대 실행과제는 ▲ 중증 및 노인질환 전문센터 개설 ▲ 고객 중심 전략적 공간 재배치 ▲ 3차 병원의 의료품질 확보 ▲ 미래 지향적 연구주도 체계구축 등이다.

Q 강원권 최대 의료기관이다. 직접 고용 인원도 1천600여명을 넘어섰다. 취임 초기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였다. 현재 강원대병원의 분위기는?

A 올해 5월, 대규모 인력 전환이 있었다. 과거 외부 용역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맞춰 모두 정규직이 됐다. 이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상담소인 '마음터'를 개설했고, 직원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국립대 병원으로서 역할은 자칫 부담스러운 감투였고,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지난 20년의 성과는?

A 20년 전 춘천의료원을 인수해 시작한 강원대병원은 200병상의 작은 지방의료원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은 병상수와 의사 수가 두 배 이상, 의료수익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는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터가 만들어졌고,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Q 현재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에 대응한 지난 100여일은?

A 설 명절 이후 5월까지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으로 상당 기간 이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본다. 병원엔 장기전에 대비해 최근 워킹 스루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음압격리병상도 확충할 예정이다. 20년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앞장서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Q 의전원장과 지방 공공의료원장(속초), 강원도 재활병원장을 두루 역임했다.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망은?

A 강원도는 넓은 공간에 적은 인구를 가진 지자체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공공보건의료가 중요하다. 강원도의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만의 몫이 아닌, 국가, 지역,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계속 탐구할 것이다. V

